

시인의 마을



야그덜은,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으면
기림, 부족한 게 없잖아, 각이 적어, 각 말여
물이면 물, 바람이면, 바람, 햇살이면 햇살,
우렁이도 있고, 여그가 지상낙원여, 천국여
꿈이 생겨 부러, 영원한 법씨*가 될거야, 너랑

*법씨(씨버)-못자리에 뿌려 기를 베키 씨

법씨의 꿈

|| 시를 다다 ||

법씨를 뿌렸다. 그리고 한 달여, 파란 싹을 시작으로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다. 마치, 축구장의 잔디처럼, 알맞게 자라났다.
이제는 저 넓은 논으로 갈 때만 기다리고 있다. 그 기다림에
두근두근 설렌다. 주인 부부가 새벽에 논둑에서 말한다. '야그
덜은,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구먼/ 기림, 부족한 게 없잖아/
작년에도 그랬다. 아무 재해 없이 잘 자라 주어 고맙고 반가웠
다.

'물이면 물, 바람이면, 바람, 햇살이면 햇살/ 뭐, 하나 부족함
이 없다. 동면하던 우렁이도 고개를 내민다. '우렁이도 있고,
여그가 지상낙원여/ 비록, 짝지만 강렬한 삶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법씨 가족이 존경스럽다.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자연의 시련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꿈이 생겨 부러, 영원한 법씨가 되고 싶다는 마지막 행차
럼, 이 믿음 그대로 기록되길 희망해본다.

오늘도 마음 한 자락에 법씨를 뿌린다.



박 여 범

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독자제언

보이스피싱 예방법? 이것만 기억하자

보이스피싱은 2006년 처음 등장하여
지금은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모
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
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요즘 저런
사기에 누가 당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나에게도 내 지인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며, 수 없이 일
어나고 있는 범죄이다.

보이스피싱의 편취방법에는 크게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다.
검찰·경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
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현금을 직
접 받아가는 보이스피싱이다.

둘째,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과 같이 사칭
하여 대출금 상환목적등을 이유로 계
좌이체토록 하는 보이스피싱이다.

셋째,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이다.
지인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이체하게

하거나 불법프로그램등을 깔게 한 후
현금을 이체해가는 보이스피싱이다.
이러한 편취방법을 이용하여 코로나
19 지원, 재난지원금, 정부보조금 등
시기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하여 피
해자들을 현혹시킨다. 보이스피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형
태로 발전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미래에는 앞서 언급한 유형보다 좀
더 진화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나타
날 것이다. 예방을 위해 적어도 이것
만은 기억하자!!!

현금인출,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의심
하고 또 의심하자.

자녀등 지인을 사칭하면 본인임을
꼭 확인하자.

적어도 이 두가지 만이라도 숙지하
여 나와 내 지인의 경제적 자산을 위
협하는 범죄를 예방하였으면 한다.

양옥철 무주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기우제용 얼굴 분장하는 캄보디아 마을 주민



9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북서쪽의 프링카이크(Pring Ka-ek) 마을에서 한 주민
이 기우제를 위해 얼굴에 전통 분장을 하고 있다. 모내기철을 맞아 이 마을 주민들
은 쌀의 풍작을 기원하는 연례 기우제를 열었다.

사설

돌봄 대상 노인 반려식물

요즘 반려식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반려식물은 반려동물에게
들이는 애정만큼 식물에 가꾸고
교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식물에 정성을 들이며 힐링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퇴근 후 집에 오면 식
물들부터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말도 못 하고 감정표현
도 못하는 식물이지만 애정을
주면서 서서히 교감을 쌓으며
자란다.

최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돌봄 대상 노인 500명을 대
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있
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 등을 해소하기 위
해 시작됐다.

반려식물은 전주시 양묘장에서
육묘한 개화기가 길고 색깔이
있는 화초가 활용됐다. 주로 안
젤로니아 등 5종의 반려식물을
보급한 것이다.

반려식물을 받은 노인들은 "꽃
을 보니 예쁘고 즐겁다"면서 직
접 반려식물 이름을 지어주거나
재배법을 문의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박용자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반려식물
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활력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려식물은 정신 건강에 긍정
적인 효과를 준다. 무력무력 자
라는 푸른 잎을 가꾸며 돌보
는 것이 정서적인 교감과 힐링
에 큰 도움이 된다. 두통 해소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데도
매우 좋다.

반려식물을 돌보는 행동은 정
신적 안정과 우울한 상태 개선
에 큰 효과가 있다. 녹색 식물
즉 자연과의 연결과 교감은 뇌
에 행복한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해 불안이나 긴
장 상태에서 회복시켜준다.

반려식물이 새로운 활력을 선
물하고 있다. 노인 뿐 아니라 많
은 사람들이 반려식물을 많이
길러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어르신 반응을 통해 반려식물을
더욱 확대 보급하도록 앞장서기
바란다.

완주 도계마을 자치연금 지급개시 선포식

전국 제2호 완주군 도계마을
자치연금 지급 개시 선포식이
10일 오전 도계마을 경로회관
앞마당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
다.

이날 행사는 완주군을 비롯 국
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 농어
업협력재단이 주최했다.

식전 행사에 이어 기념식과 오
찬 그리고 마을 한마당 잔치가
흥겹게 진행됐다. 이에 앞서 완
주군은 지난 2021년 11월 23일
봉서골 도계마을 영농조합법인,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 공동체 노후 소득 보완
및 농어촌 복지 지원을 위한 업
무 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마
을 자치연금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약 기
관의 고유 역할을 활용한 태양
광 발전 설치 등을 지원하며 △
공동체 자치연금 구축과 지원을
위한 그린뉴딜 공동 사업을 추
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어촌 상생 기금을 활

용한 사업의 집행 관리와 사후
관리를 수행하며 △공공의 이익
과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협
력 등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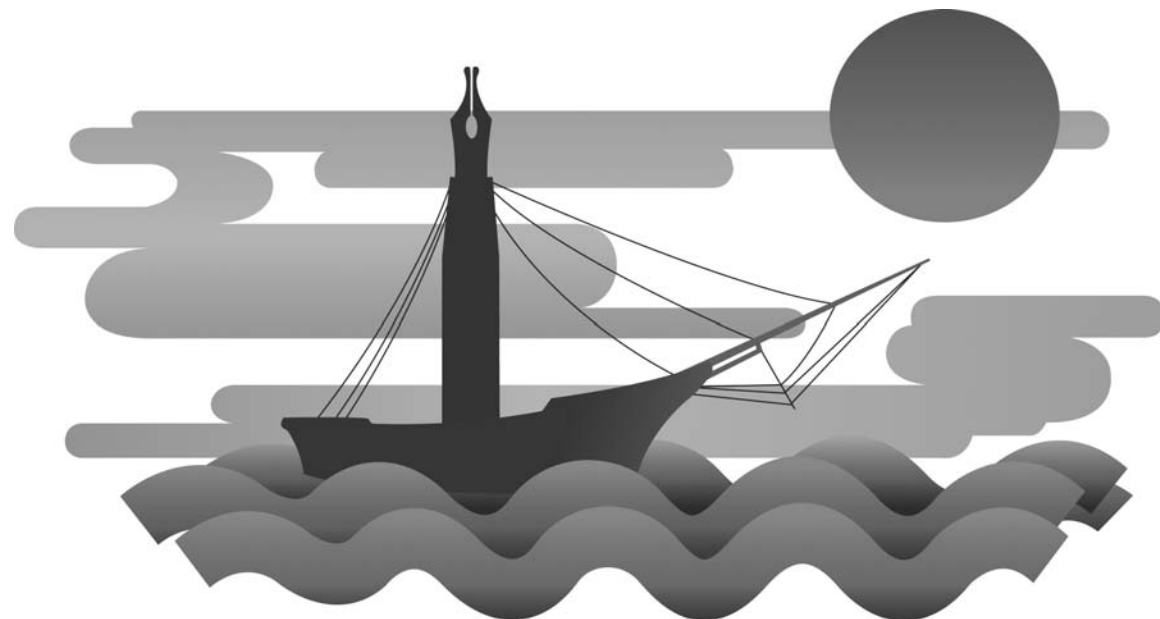
이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
광 발전 시설을 조성, 발전 수
익금(60%)과 마을 공동체 수익
금(40%)을 활용해 도계마을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게 매월 7만원에서 10만원 안팎
의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완주군과 농어촌 상생 협력 기
금이 태양광 시설 구축 초기 비
용을 각각 절반씩 지원하게 된
다. 도계마을은 전체 주민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34명이
마을 자치연금 혜택을 받게 된
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 사업은
마을 공동체 노후 소득 보완 효
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을 자치연금을 통해 어르신
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향
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 지
역의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대안이 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